

강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소통 본격화

강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읍·면을 직접 찾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은 지난 11일 오전 도암면사무소, 오후 칠량면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취지와 주요 내용, 추진 상황 및 주민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 또는 최대 2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업의 취지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 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과의 소통에 힘을 쏟았다.

김진관 인구정책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주민 한 분 한 분께 꼼꼼히 안내하겠다”며 “읍·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예산을 면밀히 조정하고, 최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재원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전운재 기자



도암면이장회의에 인구정책과장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내용 및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 일로읍 지사협에 추석맞이 민어 58박스 기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은 17일 포미아구점 오통점 노승찬 대표, 보아농장 정광일 대표, 죽산2리 주민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건조 민어 58박스(350만 원 상당)를 일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에는 명절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어를 준비해 나눔에 뜻을 모았다.

김윤덕 일로읍장은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추석 제수 용품을 마련해 주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민어 기탁은 2025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으며,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해 명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서용운 기자

강성휘 목포시장, 교육부 앞 1인 시위



강성휘 목포시장이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목포 시청 제공

강성휘 목포시장이 지난 16일 교육부 앞에서 전남 국립대 후보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반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그동안 서남권 지역 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위법·불공정성을 교육부에 직접 전달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했다.

앞서 강성휘 시장은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도 국립목포대

가 제기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을 촉구하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호소한 바 있다.

강 시장은 교육부에 후보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반대를 거듭 촉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립의대 설립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할 방침이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2027년 국비 확보 위해 당정 협력 강화

함평군이 지역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함평군은 17일 “더불어민주당-함평군 예산·정책 당정협의회”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7년도 정부예산과 연계해 함평군이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 건의사업을 공

유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이계호 국회의원, 이남오 함평군수, 모정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원, 김영인 함평군의회의장을 비롯한 함평군의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함평 지역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함평군은 이날 회의를 통해 지역

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총 13건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군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영암 모정마을 골목·한옥이 놀이터로, 주민이 만든 농촌체험

영암군 군서면 모정마을 주민들이 골목길과 한옥, 농촌의 생활공간을 체험장으로 꾸며 방문객들과 마을의 일상을 나눴다.

모정마을은 지난 12일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마을 체험행사 ‘마을이 놀이터다’를 열었다.

방문객들은 마을 곳곳을 걸으며 짬뽕예와 고추 따기, 옛날 놀이와

전통놀이, 골목길 손바닥 짝기, 한복 입기 등을 체험했다.

마을에서 자란 고추를 직접 수확하고 짬뽕을 활용한 생활공예품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주민들은 모시송편과 찰밥, 고구마, 식혜 등 추석 음식을 준비해 방문객과 나눴고,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체험 시설 대신 마을의 골목과 한옥, 농촌 생활공간을 활용하고 주민들이 프로그램 준비와 운영에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마을을 걸으며 농촌의 생활문화와 주민들의 일상을 경험했다.

/김기철 기자

신안 자은면, 추석맞이 마음나눔 꾸러미 전달

신안군 자은면은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17일 자은면 다목적회관에서 LG헬로비전 호남방송의 후원으로 자은면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2026년 추석맞이 마음나눔 꾸러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LG헬로비전 호남방송이 지정기탁금 500만 원을 후원하고, 자은면여성단체협의회와 (재)신안군복지재단이 민관 협력으로 함께 뜻을 모아 마련됐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자은면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오전 6시부터 행사에 참여해 김치 300포기를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3kg씩 150박스로 포장해 자은면 관내 경로당 30개소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했다.

/박성태 기자

